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核만 안 만들면 北도 원전 보유 가능"

엘바라데이 "검증 보장시 대북 경수로 제공"

"초기단계 이행 낙관…1개월 후면 폐쇄 종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평화적 핵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만 보장된다면 대북 경수로 제공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IAEA 기술협력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 일각의 우려와 관련, "경수로가 됐건 다른 원자로가 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도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으니 북한에 경수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미측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이 향후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어 "어떤 국가건 간에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만 보장되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 "원자로 자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험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4일 IAEA감시·검증단이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한 뒤 "5개 핵시설 폐쇄 등 북한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다"면서 "핵시설 폐쇄는 시작되는 때부터 1개월 후면 완전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문제는 초기단계 이후 2단계 조치"라면서 "향후 핵폐기물 처리 등을 어떻게 할지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전망에 언급, " 북한이 NPT에 돌아오는 것은 6자회담 과정에서 나중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NPT복귀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는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알 카에다, 美 본토 테러" 공방 격화

CIA "조직 재건 성공, 유럽 통해 침투 가능성"

백악관 "위협 없다" 반박…유럽도 테러 가시권

미국 백악관이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올 여름 미 본토에 대한 테러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잇단 보도와 관련해 11일 "특별히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반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정부군이 이슬라마바드의 '랄 마스지드(붉은 사원)'를 점거해온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을 유혈 진압한 뒤 알 카에다가 파키스탄 정부를 상대로 성전(聖戰)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때맞춰 영국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친(親)파키스탄 국가들에 대한 테러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미 테러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 알 카에다 근거지를 공습하고 테러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등 조직와해에 나섰지만 최근 테러분자들의 잦은 훈련과 자금 유통, 통신 확대 등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팀장이었던 존 크린건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에 출석, "알 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파키스탄 내 통제불능 지역에 피신처를 잘 구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훈련과 자금, 통신 등 모든 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알 카에다가 대미 공격을 마치 홈런을 친 것처럼 간주할 것"이라며 "유럽을 통해 미국으로 침투하는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오만 근해서 한국 화물선 침몰

12명 구조…한국인 선원 4명 포함 11명 실종

중동 오만 근처를 항해하던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에 물이 들어차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의 선원 23명 중 1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1명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11명 중 한국인은 선장 전삼익(38)씨, 3항사 최규인(24·목포시 용당 2동)씨, 기관장 이병화(54)씨, 1기사 현관수(36)씨 등 4명이다.

12일 해양부와 주오만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이하 한국시간)께 중동 오만 근처 무스카트 동방 94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제주선적 2만6천50t짜리 화물선 오키드선호의 화물창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는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지 30여분 뒤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철재 4만2천t을 싣고 지난달 18일 중국 천진 신항을 출발해 이란 호메이니항으로 향하던 이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3명, 칠레인 2명 등 모두 23명이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명은 선상에서 바로 구조됐고 5명은 해상에서 구조됐다고 주 오만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구조된 12명 중 한국인은 1항사 진건식(49)씨, 2항사 신장철(41)씨, 3기사 임영진(24)씨, 조리장 홍근명(60)씨 등 4명이다.

주 오만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근 해안에서 기동 훈련중이던 일본 함정에 한국인 1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한국인은 왼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어 일본 함정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이날 오후 늦게 무스카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민간 선박과 오만 해양경비대의 헬기 등이 동원돼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양부 해양안전정보센터 관계자는 "승선원들은 선사에 배 화물창에 물이 들어찼다고 긴급 구조요청을 한 뒤 구조보트를 타고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전 8시10분 선사와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두바이=연합뉴스

"중국내 탈북자 작년까지 3만명"

USCRI, 작년 1,800여명 강제 송환돼

중국 내 탈북자들은 지난해말 현재 총 3만명에 달하며, 작년에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는 1천8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난·이민위원회(USCRI)가 11일 밝혔다.

USCRI는 이날 발표한 '2007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와 유엔 기구, 비정부단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학대와 강제송환 등의 차별적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USCRI는 2006년 같은 조사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5만명, 한 햇 동안 강제 송환 탈북자는 5천 명으로 추산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는 1년 사이에 탈북자나 강제 송환자가 상당히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년말 한국 내 난민 수는 2천400명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덴마크 외무부 "하노이 탈북자 한국행 희망"

덴마크 외무부는 11일 베트남 하노이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 가족 4명이 한국행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외무부 영사담당 수석 관리인 라르스 튀센은 "탈북자들이 덴마크로의 망명을 원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튀센은 또 이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접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펜하겐AFP=연합뉴스

수줍은 남자, 심장병 위험!

평소 수줍음을 잘 타는 남자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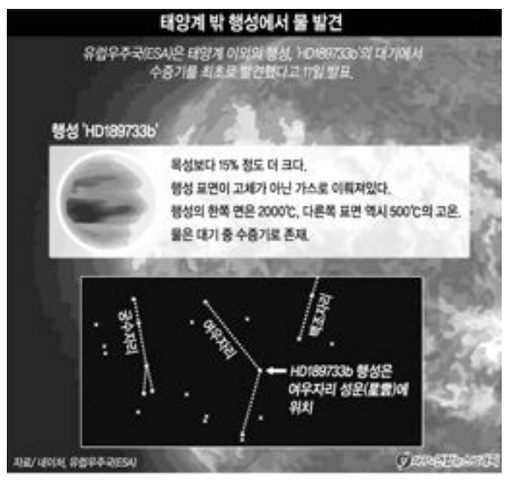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재릿 베리 박사와 필립 그린랜드 박사는 미국 역학학회 학술지 '역학회보'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남성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50% 높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2천80명(조사시작 당시 40~55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성격의 유형을 조사하고 30년이상 지켜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혹시 생명체가?

태양계 밖 행성에서 '물' 처음 발견

유럽우주국, 수증기 존재 논문 게재



태양계 밖의 행성에도 물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생명체 발견에 대한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1일 AFP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유럽우주국(ESA) 죠반니 티네티(Tinetti)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간 천체물리학자들로부터 물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돼온 여우자리 성운의 'HD189733b' 행성의 대기에서 뜨거운 수증기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전문 '네이처'지 최신호에 게재했다.

대기권 외부의 적외선 센서로 관찰한 결과, 행성이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일부를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중 수증기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HD189733b' 행성은 지구로부터 60광년 떨어진 외부행성으로, 150광년 밖 거리에 위치한 페가수스 자리 성운의 'HD 209458b(일명 오시리스)'와 함께 천체물리학자들의 집중적 연구 대상이 돼왔다. /연합뉴스